

주의 뜻을 이루어 주를 기쁘게 하는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70
063)211-8913
www.jdongsan.org

인도 : 김신일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목상기도	/ 다 같 이	
기 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25장	/ 다 같 이
29. 시편 65편		
인도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회 중/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인도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회 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인도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 성시교독	회 중/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인도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회 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인도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회 중/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인도자/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회 중/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524장	/ 다 같 이
기 도	1부: 배태열장로 2부: 김태선장로	
성경봉독	마 11:28~30 (신약18p)	/ 다 같 이
찬 양	1부: 시온찬양대 2부: 호산나찬양대	
설 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 김신일목사
기 도	/ 다 같 이	
찬 송	337장	/ 다 같 이
봉헌기도	/ 설 교 자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성도의 교제	/ 인 도 자
* 찬 송	635장	/ 다 같 이
* 축 복	/ 설 교 자	

* 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 : 로고스찬양단

인도 : 김진기목사

신 앙 고 백	다같이
찬 송	14장
기 도	박금순권사
성 경 봉 독	창 8:20~9:2
특 송	
설 교	이소성대(以小成大) /김진기목사
찬 송	315장
광 고	김진기목사
축 복	김신일목사

찬양 : 카리스찬양단

인도 : 박정길목사

신 앙 고 백	다같이
찬 송	197장
기 도	노정선집사
성 경 봉 독	고전 12:28~31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설 교	고린도전서강해(32) 더욱 큰 은사 /김신일목사
찬 송	320장
광 고	박정길목사
축 복	김신일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경본문 및 주제 / 사무엘서와 기도

인도 / 김신일목사

봉사위원 7월

주일1부	안내	김태선 이순재 이숙자 / 실내안내 : 지순자 이득희
	헌금	국중홍 김재순 김진순 심해련 김분이
주일2부	안내	배태열 장미화 윤인숙 / 실내안내 : 구영순 김숙희
	헌금	김창섭 김미애 노정숙 양연숙 박정인 인세라 신인숙 김선자b 김순애

예배위원

		7/22	7/29	8/5	8/12	8/19
주일1부	기도	배태열	김영택	박정기	홍순정	송재덕
주일2부	기도	김태선	배태열	김영택	박정기	홍순정
주일오후	기도	박금순	지순자	송보덕	장미화	차량/관리
수요일예배	기도	노정선	윤인숙	오명자	이진순	김영자

지난 주 현금

십 일 조/	김순임 이선우 허지은 유진순 박정길 이영희 박미서 이현진 송춘우 진춘덕 주해순 황순이 이석문 신연옥 김미애 류경문 진현화 홍안나 정선희 이수행 최선미 송미화 최승희 김진기 이봉룡 조민숙 류동현 김정란 김성길 김선애 유기준 홍단비 황영애 이옥림 김영식 천송엽 박만석 백순옥 정선영 서선영 정동우 송일녀 김복귀 윤행자 무명①
감사현금/	임채완 황영애 한수복 김상식 이남기 송이화 정선영 이경열 신동선 박만석 백순옥 한상철 육영임 이화웅 김영자 정찬홍 이석문 송화섭 염정임 김진기 김혜진 서은성 김형찬 백미정 김향순 안승섭 하미순 진춘덕 김남용 박춘상 김성길 김선애 유기준 성선중 정은숙 송춘우 노정선 윤행자 유재인 강삼순 이양순(3-3) 무명⑦
생일감사현금/	송용운 김성은 김중현 이봉님 이하엘
심방감사/	안정열 서은주 이옥림 노영길 한정희 조복례 김은영 유수진
단기선교후원금/	박효식 이명오 이일형 김영택 이정옥 허일 정이숙 이정애(3-3) 2권사회 1여전도회(마리아) 무명①
선교현금/	박정길 김용례 김순임 이선우 윤행자
장학현금/	박정길
구제현금/	무명①
세례교인현금/	무명①
특별작정선교현금/	이옥림 김진상 김기준 송춘우 최승희 이석문 김진기 정영주 김주원 김주이 김순애 손판기 이현남 이희구 윤신자 김태완 문방환 송순자 유양자 안인자 최선미 김장수 장미화 안옥자 김선자(3-5)
특별작정장학현금/	김장수 장미화 최선미 유양자 김태완 이희구 손판기 이현남 김순애 김진기 정영주 김주원 김주이 이석문 최승희 송춘우 임정선 문숙희

지난 주 금요연합구역모임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역	구역장	인원	구역	구역장	인원	구역	구역장	인원
1-1	윤인숙		1-6	윤순자		2-2	허영이	
1-2	오명자		1-7	김숙희		2-3	지순자	
1-3	이진순		1-8	박영자		2-4	김창섭	
1-4	김영자		1-9	황관자		2-5	김지순	
1-5	정애순		2-1	김혜숙		2-6	조수자	
구역	구역장	인원	구역	구역장	인원	구역	구역장	인원
2-7	김미희		3-4	노춘자		4-2	이순재	
2-8	조영순		3-5	이옥희		4-3	배옥희	
3-1	유희경		3-6	최성희		4-4	안수봉	
3-2	박금순		3-7	조복례		4-5	구영순	
3-3	이정애		4-1	이현남		4-6	노정선	

지난 주 출석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일1부	주일2부	주일오후	수요예배
8	45	35	39	24	30	24	236	282	162	125

교회소식

*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모임 및 안내

- 새가족 교육 : 동산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은 매 주일 오후 1시, 2층 새가족실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안내 및 새 생명반 교육이 있습니다.
- 화요기도회 :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2018년 제4차 태국치앙마이 단기선교

- 2018년 제4차 태국치앙마이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8년 주일학교 여름 사역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유치부	유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7/21(토)~22(주일)	7/27(금)~29(주)	7/26(목)~28(토)	7/26(목)~28(토)	8/15(수)~18(토)
본 교회	본 교회	웅천소망교회	중부대학교	웅천소망교회

□ 교우소식

- 입원: 권유정집사(4-2구역), 다생한방병원
강삼순권사(3-1구역), 전북대병원
김선청년,(김영곤,권세라집사 아들),대자인병원

지난주일 설교요약

■ 2018년 7월 15일 동산교회 설교 요약 / 평안과 미래와 희망 (렘 29:4-14)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인 '환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간 거기서 복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환난과 시련의 때는 70년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고난과 함께 지내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본문 5-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민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포로기라는 고난의 시기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환난과 시련’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고 결국에는 희망 찬 미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통속에서 지내야 할 기간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우리를 갓터미에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소망에 가득찬 미래를 실제로 가져다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넷째,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환난과 시련을 이용하십시오.**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자신의 변화를 여는 열쇠로 삼는 것입니다. **본문 12-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환난과 시련은 고통스럽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열은 벗어나고 싶은 기간입니다만, 이 기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고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분명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환난과 시련의 때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신데¹ 그의 존재하심과² 지혜와³ 권능과⁴ 거룩하심과⁵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⁶ 무한하시며⁷ 영원하시고⁸ 불변하십니다.⁹

참조성구 1) 요 4:24 2) 출 3:14 3) 시 137:5 4) 계 4:8 5) 계 15:4
6) 출 34:6~7 7) 욥 11:7~9 8) 시 90:2 9) 약 1:17
말 3:6

동산교회 소개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	오전 9:00	본당
주일2부	오전 11:00	본당
주일오후	오후 4: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유치부	오전 11:00	본당1층
유년부	오전 11:00	교육관3층
초등부	오전 11:00	교육관2층
중등부	오전 11:00	소예배실
고등부	오전 9:00	소예배실
청년부	오후(토) 6:30	소예배실

선교현황

파송선교사

김경애(필리핀)

협력선교사

교회

복있는, 새사람, 구미중앙, 섬김, 창신, 덕천, 한반도, 주원, 희망의, 에덴힐, 반석, 삼유, 주향기, 한소망, 매암제일, 구레온당, 공향, 보안제일, 예수마을, 학동, 신동, 한몸, 울타리, 참좋은반석, 작은샘골공동체

해외

박정대(시에라리온), 한용관(태국), 김환준(홍콩), 이강용(필리핀), 장순이(남아공), 김경신(브라질), 방치성(키르기스스탄), 오영조(인도네시아), 권능(러시아)

기관

(사)사랑자리, 전주교도소, 군포사회복지관, 한국OMF선교회, 어린이전도협회

오시는 길

[548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70



사무실 063)211-8913 교역자실 063)213-0018
팩스 063)211-8910 유치원 063)212-5595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신일
부목사 김진기 박정길
강도사 송춘우
교육전도사 황영하 유기준 이영란
파송선교사 김경애
원로장로 심두섭 송화섭 김장수
은퇴장로 정동우 이석문 이기전 김동만
시무장로 김석곤 김태선 배태열 김영택
박정기 홍순정 송재덕
협동장로 이봉룡 진춘경 한재성
지휘 김성진 김한나
오르간 배옥희 주혜진
피아노 손세리 박지영 서선영 홍단비
송하은
관리집사 류경문
사무간사 송이화
차량 김상식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가 결여돼 있고, 부족하고, 인생은 무상하고 덧없고, 본질과는 뭔가 동떨어진 껍데기와 같다는 인식은 제대로 된 사고만 할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동경하게 되어있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뭔가를 채워보려는 시도를 이모양 저모양으로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시인 김지하는 그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에서 독재정권 하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착된 요즈음에도 그는 여전히 생명에 대한 경외와 천착을 계속함으로써 그 목마름이 아직도 해갈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70년대 후반 포크 가수 한대수 역시 “물 좀 주소”라는 노래를 통해 목마름을 이야기했고, 90년대 초반 비닐 하우스에서 살고 있다고 소개된 강산애가 한대수의 “물 좀 주소”를 리메이크 함으로써 그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고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과 빈자리를 느끼기에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헤갈릴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예술, 성공, 돈, 명예, 권력, 인정, 사랑, 가정 등에서 참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씩 충족되면, 참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참된 만족을 갈망하는 자기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팡세>라는 책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다름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갈망과 (참된 만족을 얻지 못 해서 비롯된) 절망감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우리 안에는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대신 텅 빈 공간만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빈자리를 세상의 온갖 것들로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헛될 뿐이다. 도움을 주지 못할 것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무언가, 다시말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내면의 공허감이나 영적 가난함은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하는 인간적 시도에 의해서는 결코 해갈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에 이르지 않는 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사귀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망에 대한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쉼을 알 수 없고, 그러한 갈망이 있으되 갈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비롯된 고통과 더불어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